‘KIA 새역사’ 안치홍 연봉, 팬들도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2루수 최다 타점·개인 최고 성적·골든글러브·예비 FA
5번 협상 테이블 접점 못찾아…역대 2루수 최고는 5억5천 정근우

KBO리그 최고의 2루수로 우뚝 선 안치홍이 연봉에서도 ‘정점’을 찍을까?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KwIA 타이거즈 선수들은 내달 1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2019시즌을 위한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스프링캠프가 코앞에 닥쳤지만 아직 KIA는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미계약자는 안치홍이다.

꾸준함으로 대변되는 안치홍은 폭발적인 2018시즌을 보냈다.

0.342의 타율을 기록한 안치홍은 23개의 개인 최다 홈런과 함께 처음으로 100타점 고지를 넘었다. 안치홍은 130경기에서 118개의 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홍현우가 가지고 있던 국내 2루수 최다 타점(111타점) 기록도 갈아치웠다.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금메달을 견인했고, 시즌이 끝난 뒤에는 KIA 선수로 유일하게 골든글러브 시상대에 오르면서 2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에도 성공했다.

‘귀한’ 순수 타이거즈 출신 야수인 안치홍은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취득하는 ‘예비 FA’이기도 하다.

‘최고 2루수’라는 실력에 ‘예비 FA’라는 명분까지 얹어지면서 안치홍의 연봉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안치홍은 2018시즌 3억 2000만원을 받았다. 앞선 최고 2루수 연봉과 FA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해 2019시즌 연봉을 생각해볼 수 있다.

FA를 제외한 역대 2루수 최고 연봉은 2013시즌의 정근우(당시 SK)가 장식했다.

정근우는 2012시즌 타율 0.266, 8홈런, 46타점 22도루에 그쳤지만 포스트시즌 활약과 FA 프리미엄을 더해 3억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인상률 77.4%) 인상된 5억5000만원에 사인을 하면서 활짝 웃었다.

팀 내로 시선을 돌리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승승장구한 양현종의 사례가 있다.

양현종은 ‘예비 FA 신분’이던 2016시즌 4억에서 3억 5000만원 오른 7억5000만원을 받으면서 에이스 대우를 톡톡히 받았다.

2015시즌 팀 성적은 7위에 그쳤지만 2.44의 평균자책점으로 15승을 찍으며 ‘실력’을 보여줬고 FA를 앞두고 있다는 ‘명분’이 작용하면서 87.5% 인상률을 기록, 단숨에 7억 고지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양현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FA 팀내 역대 최고액 연봉기록도 갈아치웠다.

하지만 2019시즌 FA 최대어로 꼽히는 안치홍 측은 5차례 정도 구단과 연봉 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구단과 온도 차가 있지만 더 이상 계약을 미룰 수는 없다.

안치홍은 오는 22일 김주찬, 이범호, 나지완, 김민식, 박준태와 함께 오키나와로 건너가 일찍 캠프를 시작한다. 출국에 앞서 안치홍은 21일 구단을 찾아 연봉 계약서에 사인하고 시즌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치홍은 “팀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만큼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싶다. 연봉은 프로 선수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시즌 준비가 먼저다. 구단 뜻에 따라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키나와로 건너갈 생각이다.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겨울에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라 따뜻한 곳에 가서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캠프 시작과 함께 바로 시합을 하는 스케줄이라서 거기에 맞춰 준비할 생각이다”며 “올 시즌에는 아프지 않고 풀타임을 뛰는 게 목표다.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 잘해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리머니는 섹시댄스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9 프로배구 올스타전. 1세트 여자부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이재영이 어나이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택 친정팀 LG와 2년 25억 계약

FA시장 5번째 … 미계약 10명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혹한에 접어든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5번째 계약자가 나왔다.

LG 트윈스 프랜차이즈 스타 박용택(40)은 2년간 총액 25억원(계약금 8억원·연봉 8억원·옵션 1억원)에 20일 친정팀과 계약했다.

이미 2년 계약 기간에 일찌감치 합의한 양측은 계약액수에서 큰 마찰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시즌 후 FA를 신청한 선수 15명 중 최정·이재원(이상 SK 와이번스), 이재원·모창민(이상 NC 다이노스)에 이어 박용택이 5번째로 도장을 찍었다.

양의지가 지난해 12월 11일 4년 총액 125억원에 NC 유니폼을 입은 이래 딱 40일 만에 박용택이 FA 계약 배턴을 받았다.

이제 나머지 10명의 거취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5명의 FA 계약자 중 양의지를 뺀 4명이 원 소속팀에 잔류한 사례에서 보듯 올해 각 구단은 사실상 지갑을 굳게 닫았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야구단의 발목을 잡았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졌다.

미계약 FA는 이용규·최진행·송광민(이상 한화 이글스), 윤성환·김상수(이상 삼성 라이온즈), 이보근·김민성(이상 키움 히어로즈), 박경수·금민철(이상 kt wiz), 노경은(롯데 자이언츠) 10명이다.

프로 10개 구단은 이달 말 미국, 호주, 일본, 대만으로 훈련을 떠난다. 자율 훈련 형식으로 선수들을 미리 스프링캠프로 보낸 구단도 있다.

FA 선수들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정규리그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해외 현지 훈련 초반부터 선수단과 함께 땀을 흘려야 한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상 FA 선수들의 다른 팀 이적은 더욱 어려워졌다.

스프링캠프 출발까지 열흘 남짓 남은 기간 원소속팀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일이 미계약 FA에게 당면한 숙제다.

양상문 롯데 감독과 이강철 kt 감독은 새로 지휘봉을 잡았다. 김한수 삼성 감독과 장정석 키움 감독은 3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맞이한다.

한용덕 한화 감독은 2년 연속 한화의 돌풍을 꿈꾼다. 해마다 좋은 성적을 바라는 각 구단은 기존 전력 유지라는 최소한의 선물을 장수들에게 안겨줄 책임이 있다. /연합뉴스

재미교포 스노보드 선수 클로이 김(19)이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명불허전’ 클로이 김

FIS 월드컵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통산 7번째 우승

재미교포 스노보드 선수 클로이 김(19)이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개인 통산 7승째를 거뒀다. 클로이 김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2018-2019 FIS 월드컵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3.75점으로 우승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콜로라도주 코퍼 마운틴에서 진행된 월드컵에서도 우승한 클로이 김은 이로써 시즌 2승, 개인 통산 7번째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다.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월드컵은 이번이 시즌 세 번째 대회였다. 클로이 김은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열린 2차 대회에는 불참했다. 클로이 김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올해 1, 3차 월드컵까지 출전한 세 차례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이번 대회 2위는 80.50점의 케랄트 카스텔레(스페인), 3위는 77.25점의 에어리얼 골드(미국)가 각각 차지했다.

클로이 김은 지난해 12월 1차 월드컵 때도 혼자 90점대 점수로 우승하는 등 다른 선수들과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선보였다. 그러나 3차 대회까지 합산 점수에서는 클로이 김이 불참한 2차 대회에서 우승한 차이쉐퉁(중국)이 2100점으로 1위, 클로이 김은 2000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